

퇴계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

송 문 석*

차 례

1. 序
2. 성현과 隱者의 형상으로서의 壘
3. 理法의 세계로서의 山과 峯
4. 結

1. 序

퇴계에 있어서 자연은 문학의 소재이며, 동시에 하나의 원리로서 심미(審美)의 대상이며 학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을 다루고 있는 퇴계의 문학을 산수문학이라고 한다. 산수문학의 요소는 상심(賞心)과 상자연(賞自然)이다. 상심은 감상자의 정을 강조하는 용어로 감상자의 주관적이고도 감상적인 내면의 정서를 가리킨다면 상자연(賞自然)은 산수경물의 형상인 경(景)에 주안점을 둔 용어로 감상의 대상인 산수경물의 객관적, 외형적 형상에 대한 감상을 의미한다.¹⁾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퇴계가 자연을 매개로 상심(賞心)과 상자연(賞自然)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퇴계의 시를 보고 상심과 상자연(賞自然)을 느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매개물은 퇴계의 시가 될 수밖에 없다. 즉 퇴계의 시를 통해 퇴계가 느낀 상심(賞心)과 상자연(賞自然)을 일정한 원리에 따라 수용자인 독자도 느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독자(讀者)가 퇴계의 시를 통해 상심(賞心)과 상자연(賞自然)을 수용(受用)한다는 것은 퇴계가 작품에 상심과 상자연(賞自然)을 어떠한 방식으로 투영하였는지에 대한 고찰(考察)을 필요로 한다. 이는 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연을 인식하고 또한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고찰(考察)일 수밖에 없다.

작가가 어떤 소재나 대상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소재나 대상이 작가에게 유의미함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역으로 작가가 그 소재나 대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자연경물을 문학적 소재로 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어떤 자연 경물은 작가의 선택에 의해 문학적 소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물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대상과 작가의 관계가 일상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자연경물(自然景物)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작가의 의식에 따라 자연 경물 중 특정한 소재가 자주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정한 자연경물(自然景物)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은 작가가 대상에 특별한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연경물(自然景物)을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퇴계의 시에서 모두 살펴보는 것은, 2000여수의 작품을 일일이 분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므로 산수문학으로 불려지는 퇴계의 문학세계에서 산수의 가장 중요한 소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산을 대상으로 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산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산은 하나의 외부

경물로 산수문학의 가장 중요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산수문학의 핵심적 개념을 표상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의 의미를 통해 퇴계의 미적태도(美的態度)를 파악하는 것은 비단 산과 관련된 작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퇴계의 산수문학 전체의 원리를 조망하게 할 것이다. 이는 퇴계의 산수문학을 이해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퇴계의 시에서 산을 논하는 것은 퇴계의 미의식을 고찰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가 지니고 있는 학문적 경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퇴계의 시에 산이 나타나 있는 경우는 매우 많으나 여기서는 '대(臺)'나 '봉(峯)' 또는 '산(山)'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살펴보려 한다. 제목은 단순히 소재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논의의 목적은 퇴계의 시에 나타나 있는 산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산수 문학에서 산수의 의미를 더욱 명료화해보는데 있다. 퇴계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은 산수문학으로 규정되는 퇴계의 문학에서 산수의 의미를 작품을 통해 구체화하는 의의(意義)도 지니리라 생각한다.

2. 聖賢과 隱者의 형상으로서의 臺

산수문학은 자연이해의 주된 태도인 감성적 인식의 차원을 넘어 자연에 어떤 정신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을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미의 대상으로 사유하게 되는²⁾ 문학을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성적 인식의 차원과 형이상학적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감성적 인식의 차원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그려내는 것을 포함하여 그

2) 손오규, 위의 책, p.17.

대상에 대한 호불호(好不好)의 정서를 드러내는 차원을 말한다면,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미의 대상으로 사유하는 것은 감성적 인식의 차원을 바탕으로 주체인 화자가 자신의 경험구조, 특히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사유의 세계와 결합함으로써 드러나는 의미를 말한다.

이는 자연에 대한 서경이 단순히 객관적 묘사와 그에 대한 찬미(讚美)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경 자체가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어떤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의미는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수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그럼으로 필자는 형이상학적 미의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 작품이 환기하는 정서와 정서의 처리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퇴계의 산수문학에서 산과 관련된 제목을 가진 작품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臺), 봉(峯), 산(山)이 그것이다. 대(臺)와 관련된 작품은 고반대(考盤臺), 석제등대(石霽登臺), 초은대(招隱臺), 응사대(凝思臺)의 네 작품이 있다.³⁾ 크기나 범주 면에서 볼 때 산이 가장 큰 개념이라면 그 다음은 봉이며, 대는 가장 작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대와 관련된 작품들을 통해 형이상학적 미의 세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다음은 시 고반대(考盤臺)다.

고반대(考盤臺)

層臺府絕壑 층층이 쌓인 고반대 깊은 계곡 굽어보고
 下有泉鳴玉 대아래 폭포소리 고운 옥을 울리는 듯
 西臨豁而曠 서녘엔 들이 넓고도 흰히 열렸고
 東轉輿且闐 동녘엔 골이 깊고도 고요하도다
 剪蔚得佳境 닝쿨을 베어내고 아름다운 곳 찾아내어
 茅茨行可卜 그 곳에 띠집을 지어 거처를 마련하리니
 隱求復何爲 은거의 뜻을 얻었으니 다시금 무엇을 바라리오
 優遊歌弗告 슬카장 노닐면서 고반시나 읊으리라

3) 논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손오규의 『퇴계시가예술 연구』에 수록된 작품으로 한정한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반대(考盤臺)를 중심으로 하는 배경이 드러난 4구까지를 전절로 나누다면 퇴계의 행위나 행동이 드러나 5구에서 8구까지는 후절로 볼 수 있다.

1구의 '층층이 쌓인 고반대(考盤臺) 깊은 계곡 굽어보고'에서 躡는 보통 하늘로 높이 솟아오른 바위나 절벽을 가리킨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이런 사전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는다. 고반대의 객관적 서경을 묘사하는 즉 감성적 인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인법에 해당하는 '굽어보고'의 주체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다. '굽어보고'의 주체는 화자인 퇴계가 아니라 고반대(考盤臺)이다.

사물이 의인화되었다는 것은 작가가 그 사물에 어떤 인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반대(考盤臺)는 어떤 인격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인격은 대아래 폭포소리 고운 옥을 울리는 듯한 인격이다. 2구에 나타난 고반대(考盤臺) 밑에 폭포가 흐르고 있고 그 흐르는 폭포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울리고 있다는 표현 역시 단순히 서경에 대한 묘사만이 아니다. 고반대(考盤臺)에 인격이 부여되는 순간 고반대(考盤臺) 밑에 흐르는 폭포소리는 이 인격이 전하는 소리이다. 어떤 인격이 전하는 소리인 전언은 아름다운 것임을 말하는 것이며 이 아름다움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의 속성인 지식이나 지혜와 관련을 맺고 있는 아름다움이다.

3구의 '서녘엔 들이 넓고도 흰이 열렸고'라는 표현은 고반대 서쪽으로 막힘이 없이 열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크고 막힘이 없는 실제적 자연의 경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인격이 부여된 고반대의 경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 경지가 넓고 막힘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격의 경지는 4구의 '동녘엔 골이 깊고도 고요하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골이 깊고도 고요하다는 고반대로 표상 되는 어떤 인격이 갖는 내면(內面)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인간은 누구나 깊은

내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깊은 내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매우 격정적이고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나 고반대가 갖는 깊은 내면은 언제나 고요하다. 고요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음도 드러낸다. 마음이 깊어 어떤 세속적인 것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는 기품(氣品)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구에서 4구까지는 고반대를 중심으로 자연경관이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부분은 어떤 인격이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반대로 표상되는 이 인격은 무엇인가. 손오규는 '옥(玉)'은 귀인을 의미한⁴⁾했다. 옥은 고반대가 갖고 있는 속성의 하나다. 그러므로 고반대 역시 귀인(貴人)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4구에서 퇴계는 고반대를 포함한 자연환경을 통해 귀인(貴人)의 아름다운 면모(面貌)와 경지(境地) 그리고 내면(內面)의 깊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구까지 귀인의 아름답고 넓고 막힘이 없는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면 5구 이후의 후절에서는 퇴계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5구에서 퇴계는 Ningkool을 베어내고 아름다운 곳 찾아내어 그 곳에 띠집을 지어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Ningkool을 베어내고 아름다운 곳 찾아내겠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 터를 고르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Ningkool'의 의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Ningkool은 이리저리 일정한 방향 없이 뻗어나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Ningkool을 베어낸다는 것은 일정한 방향 없이 이리저리 뻗어나가는 자신의 의지를 베어내고 경계한다는 의미가 된다. 아름다운 곳을 찾아낸다는 의미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찾겠다는 뜻이기보다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 4구에서 말하는 귀인의 갖는 경지 즉 고반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6구의 그곳에 띠집을 지어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반

4) 손오규, 『퇴계시가예술연구』(제주대학교출판부, 2002), p.97.

대로 표상 되는 귀인(貴人)의 경지를 따르며 살겠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귀인(貴人)은 전4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세속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臺)가 산의 자연경물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귀인 역시 대자연(大自然)의 이법(理法) 속에 묻혀있는 즉 은거(隱居)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7구의 '은거(隱居)의 뜻을 얻었으니' 라는 것은 귀인의 행적(行蹟)을 따를 방도를 얻었다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귀인을 따를 방도를 얻은 학자(學者)가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어지는 표현 '다시금 무엇을 바라겠는가'는 귀인이 간 길을 따르는 일 외에 무엇을 하겠는가의 의미로 귀인이 행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퇴계가 '슬카장 노닐면서 고반시를 읊으리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귀인을 흠모하고 행적을 따르겠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귀인을 곰곰이 생각하고 받드는 심정을 고반대(考盤臺)를 통해 노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석계등대(石巒登臺)

天未歸雲千萬峯 하늘가에는 떠가는 구름, 천만 봉우리
 碧波靑嶺夕陽紅 질푸른 물결 파아란 뱃부리에 석양은 붉었네
 携筇急向高臺上 지팡이 짚고 급히 높은 누대를 향하여
 一笑開襟萬里風 한번 웃고 옷깃을 풀어 해치니 만리 바람이 시원하다.

이 시에서 앞의 2구의 표층적 진술은 서경이다. '하늘가에는 떠가는 구름, 천만 봉우리' '질푸른 물결 파아란 뱃부리에 석양은 붉었네'는 저녁놀이 물든 산을 중심으로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서경의 의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2구의 '질푸른 물결 파아란 뱃부리에 석양은 붉었네'라는 진술에 주목하면 분명해진다. 이는 색채의 대조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성(永遠性)과 유한성(有限性)의 대조(對照)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질푸른 물결 파아란 뱃부리'가 파란색과 영원성을 지닌 것이라고 한다면 붉은 석양은

금방 어두워질 유한적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영원성은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 이념이나 이상의 세계를 나타낸다면 유한성은 인생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즉 화자인 퇴계는 질푸른 물과 푸른 산으로 표상되는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나 시간은 어느덧 인생의 석양을 알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급히 높은 누대(樓臺)를 향하여'라는 표현은 전구의 의미를 매우 효과적으로 이어주고 있다. 지팡이는 산을 오를 때 사용하는 보조도구의 의미만의 아니라 나이가 든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급히 누대를 향해 간다는 의미에서 조급함이 드러나는데 이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구에 이르러서 화자인 퇴계의 태도는 '한번 웃고 옷깃을 풀어헤치니 만리 바람이 시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번 웃고 옷깃을 풀어헤치는 행위는 누대로 급히 올라가는 도중의 잠깐이 휴식과 여유를 드러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번 웃는 것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며 여기에 옷깃을 풀어헤치는 것은 누대를 보기 위해 가는 과정에 홀리는 맘으로 노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번 웃고 옷깃을 풀어헤치는 것은 즐겁게 노력하니 퇴계는 만리 바람이 시원하다고 하고 있다. 만리 바람이 시원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답답함과 조급함 같은 문제가 짝 풀리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화자인 퇴계는 나이가 들었고 어느덧 인생의 황혼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봉이라는 높은 이상을 보고자하며 대(臺)로 표현되는 성현의 행적을 급히 따라가야 한다는 조급함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답답함과 조급함은 노력하는 과정에서 모두 사라지고 즐거워 졌으며 시원해졌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석제등대(石齋登臺)는 귀인의 행적을 쫓아 즐겁게 노력하면 모든 답답함이 사라진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라 할 수 있다.

초은대(招隱臺)

晨興越清溪 새벽에 일어나 맑은 시내를 건너고

杖策尋雲壑 지팡이 손에 짚고 운학을 찾았더니
 幽人在何許 유인은 그 어느 곳에 있는고
 鬱鬱松桂碧 울창한 소나무 계수나무만 푸르구나
 山中何所樂 산중에 무슨 즐거움이 있었던고
 鳥獸悲擲陽 새와 짐승만이 슬프게 우짖으니
 永懷不易見 길이 생각한들 쉽게 만날 수가 없어
 躊躇長太息 서성이다 길고 큰 탄식만 하노라

이 시도 전 4구와 후 4구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전 4구는 화자의 행동 묘사와 서경이 중심이다. 후4구는 상심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서경은 경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서경은 뒤에 나오는 상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화자인 퇴계는 새벽에 일어나 맑은 시내를 건너고 지팡이를 짚고 운학(雲壑)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것은 유인을 찾기 위함이다. 유인은 보통 숨어 지내는 은자(隱者)를 의미한다. 이는 실제로 세상을 등지고 숨어사는 은둔(隱遁)자를 말함이 아니다. 이는 다음 구에 나타나는 울창한 소나무의 계수나무와 같이 푸르름 속에 있는 유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4구의 서경도 서경의 의미만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정신적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그것은 적어도 유인은 새벽이나 맑은 시내와 같이 희망적인 것이며 끝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물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푸르고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나 인격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적 의미보다는 퇴계가 지향하고자 하는 학문이나 사상과 관련된 고인의 의미라고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되면 새벽에 일어나 맑은 시내를 건너는 행위는 자신의 학문이나 사상을 갈고 닦는 과정을 의미하며 그 학문이나 사상의 경지를 알아보기 위해 퇴계는 유인(幽人)을 찾아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인 퇴계는 유인(幽人)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학문이 일정한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대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퇴계가 자신의 학문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낮추는 것은 끝없는 정

진을 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학문이 아직 부족함을 느낀 화자의 태도는 후4구에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산중에 무슨 즐거움이 있었던고에서 즐거움은 산 속에 살면서 자연의 경치를 감성적 차원으로 바라보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즐거움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있었던고'라는 회의적 표현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학문의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깨달은 화자인 퇴계의 탄식이며 이는 산중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자신의 다짐이기도 하다. '새와 짐승만이 슬프게 우짖는다'는 것은 화자 자신의 슬픔을 의탁하고 있는 표현이다. 즉 새와 짐승은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인 퇴계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화자의 퇴계는 자신의 부족함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문이 부족한 자신은 바로 한 마리 새나 짐승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퇴계는 생각만으로 유인을 만날 수 없음을 '길이 생각한들 쉽게 만날 수 없어'라는 시구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서성이다 긴 탄식을 하노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퇴계는 유인을 만나지 못함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유인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길이 생각한들 쉽게 만날 수 없어'라는 표현에 함축적으로 들어 있다. 즉 유인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노력하고 정진한다면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초은(招隱)이란 은자로 표현되는 유인을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초은대는 학문과 사상의 유인인 성현의 의미를 높이 솟아 있는 대에 부여하고 이렇게 높은 성현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응사대(凝思帶)

囊裳度寒磻 옷자락 걷고 차가운 시내 건너고
 捫葛步高堦 칩 넝쿨 헤치고 높은 언덕에 오르니
 老松盤巖巖 노송만이 반암(盤巖)에 구부러져 있어

百霆猶力排 벼락이 내리쳐도 오히려 곳곳한 듯
 刊除舊叢灌 해묵은 잡목 깨끗하게 베어내니
 面勢幽且佳 바라보는 형세가 그윽하고도 좋아
 翫然坐終日 멍하니 정신을 놓고 종일토록 앉았는데
 無人知我懷 나의 회포를 아는 이 없이 혼자로다

이 시에서 1구와 2구는 화자인 퇴계가 높은 언덕에 오르는데 옷자락을 걷고 차가운 시내도 건너고 칠푼클도 헤치며 겨우 올랐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언덕을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오르기에는 언덕도 벽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덕은 실제적 자연의 언덕만 이 아니라 퇴계가 지금까지 개척한 정신적 경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언덕은 응사대가 아니다. 이 언덕은 응사대를 바라보거나 응사대로 가는 과정에 있는 언덕이다. 응사대(凝思帶)는 반암(盤巖)이라는 말속에 있다. 응사대(凝思帶) 바위에 노송(老松)이 구부러져 있는데 그 노송은 벼락이 내리쳐도 오히려 곳곳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노송은 화자인 퇴계가 올려다보고 바라다보며 추앙(推仰)하는 대상인 응사대가 지닌 품격을 형상화한 것으로 어떤 인격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화자인 퇴계는 대에서 솟아 나온 노송을 통해 자신의 추앙하고 따르는 고인의 정신을 보는 순간 퇴계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5구의 해묵은 잡목을 깨끗하게 베어내는 일이 그것이다. 해묵은 잡목은 지금까지 자신의 내면에 오래 자리를 잡고 있는 쓸모 없고 가치 없는 생각들이다. 이런 불필요한 생각들을 정리한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대를 바라보면 그 형세는 더욱 그윽할 수밖에 없다. 즉 성현의 그윽한 경지를 더욱 잘 느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멍하니 정신을 놓고 종일토록 앉는다는 것은 바로 그 성현의 그윽한 경지에 넋을 놓고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하루종일 바라보아도 싫증나지도 않고 폭 빠져 있을 수 있는 성현의 경지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마지막 구에서 '나의 회포를 아는 이 없이 혼자로다'는 것은 이러한 나의 즐거움, 즉 아무리 보아도 싫증나지 않고 폭 빠져 버리게 하는 성

현의 경지를 아는 이 없이 혼자인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대를 깊이 생각하고 사모한다는 의미를 지닌 응사대(凝思帶)는 대로 표현되는 성현을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理法의 세계로서의 山과 峯

퇴계의 시에 나타나는 대(臺)는 성인이나 유인의 형상이다. 이는 일종의 이정(移情)이다. 이정(移情)은 사유현상으로 예술창작과 감상에서 은유, 의인 등의 심리학적인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정은 감상자가 심미과정에서 자신의 정감을 대상으로 옮겨 대상에 정감과 생명을 부여하는 심리활동이며 정감이 외사(外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정(移情)은 기본적으로 주체와 대상의 유사성에 근거한다. 그렇다고 해서 유사성이 형태적 유사성이나 기표의 유사성 또는 의미의 유사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정(移情)은 대상이 형성하는 범주나 체계의 유사성에 의해서도 성립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산과 봉을 살펴보면 퇴계의 형이상학적 미적 사유가 체계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적 미적 사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과 봉이라는 객관적 자연경물에 연연해서는 얻을 수 없다.

무릇 상이란 뜻을 내는 것이고 말이란 형상을 밝히는 것이다. 뜻을 다하는 데는 상만한 것이 없고 상을 다하는 데는 말만한 것이 없다. 말은 상에서 생겨나므로 말을 찾음으로써 상을 볼 수 있고 상은 뜻에서 생겨나므로 상을 탐구함으로써 뜻을 볼 수 있다. 뜻은 상 때문에 다하여도 상은 말 때문에 드

5) 유위림, 심규호역, 『중국문예심리학사』, (동문선 문예신서, 1999), p.54.

러난다. 그러므로 말이 상을 밝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을 얻되 말을 잊어야 하고 상이라는 것은 뜻을 간직하고 있기는 하지만 뜻을 얻되 상을 잊어야 한다.⁶⁾

이는 산이라는 객관적 자연경물을 1차적인 바탕으로 하되 이를 얻었으면 의미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음은 퇴계의 동취병산이다.

동취병산(東翠屏山)

簇簇群巒左翠屏 뽕뽕뽕뽕한 뭇봉우리 왼쪽의 취병산에
晴嵐時臺白雲橫 흐릿한 연무 견히자 백운이 빙둘렀구나
斯須變化成飛雨 저근 듯 변하여 비가 되어 흩뿌리니
疑是蒼久筆下生 아마도 영구의 붓끝에서 생겨나는 듯

이 작품의 1구는 뽕뽕뽕뽕한 뭇봉우리 왼쪽의 취병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취병은 산이 형상이 마치 병풍을 둘러친 듯하여 붙여진 이름⁷⁾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뭇봉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의 취병산이 여러 봉우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형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여러 봉우리들 보다 취병산이 더 높은 경지나 관념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높은 경지나 관념은 그 모습을 온전히 잘 드러내지 않는데 그것은 취병산을 둘러싸고 있는 연무로 드러나고 있다. 흐릿한 연무 견히자 최고의 경지를 지닌 취병산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것은 백운(白雲)을 빙두른 모습으로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보여준다. 이는 도산 십이곡이 백운재산(白雲在山)은 가장 듣기 좋고 보기 좋다는 표현으로도 드러난다. 이는 대자연(大自然)에 원리인 이법(理法)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이 이법은 대자연의 운행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운행(運行)은 '저근 듯 변하여 비가 되어 흩뿌리니'로 나타나고 있다. 퇴계는 이러한 변화무

6) 김원중, 『중국 문학이론의 세계』, (을유문화사, 2000), p. 30.

7) 손오규, 앞의 책, p.107

쌍한 것은 영구의 붓끝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영구는 영원이 변하지 아니하는 어떤 이법의 세계를 표상 하는 말로 산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붓끝은 산의 꼭대기를 비유한 표현이 된다. 그러므로 영구의 붓끝은 이법의 최고 경지라는 뜻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의 변화는 영구의 붓끝 즉 이법의 최고 경지의 원리에 따라 운행되어 간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동취병산의 객관적인 서경에만 머문 노래이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이법에 따른 자연의 운행 노래한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취병산(西翠屏山)

巖巖群峯右翠屏 못봉우리 높이 솟은 서쪽 취병산은
 中藏蘭若下園亭 그 중에 절이 있고 아래쪽엔 정자있네
 高吟坐對眞宜晚 높이 읊조리며 마주 대해 앉아 떠날 줄 모르고
 一任浮雲萬古青 서취병은 모든일 浮雲에 맡기고 萬古에 푸르렀구나

이 시 1구에서는 서쪽에 높이 솟은 여러 봉우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서취병산(西翠屏山)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취병산(東翠屏山)에서 드러난 것처럼 매우 높은 경지나 이념의 세계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서취병산(西翠屏山)의 중간에는 절이 있고 아래쪽엔 정자가 있다. 이는 서경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높은 경지나 이념의 세계가 서취병산(西翠屏山)으로 드러난다면 절은 그러한 경지나 이념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러한 노력은 높은 경지나 이념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나 찬송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그 아래 쪽에 있는 정자에서 그러한 의미를 드러내 주고 있다.

이는 3구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3구의 높이 읊조리며 마주 대해 앉아 떠날 줄 모른다는 것은 서취병(西翠屏)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서취병(西翠屏)이 서경적 아름다움에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취병(西翠屏)이 표상하고 있는 높은 경지나 이념에 취해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인 퇴계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숭앙하며 읊조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읊조린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인간의 노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취병은 모든 일 부운(浮雲)에 맡기고 만고에 푸르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4구의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부운(浮雲)은 백운(白雲)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동취병산에 백운(白雲)을 두른 상태와 같은 것으로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백운제산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취병산에서 백운(白雲)이 그 의미를 정확히 하지 못했던 것이 서취병산에서는 의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백운은 만물의 운행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면 그 중심에 변하지 않는 대자연의 원리인 만고에 푸르른 산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즉 산(山)이 대자연의 원리인 이(理)의 세계라면 이를 운행하는 기(氣)의 세계는 부운(浮雲)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동취병산과 도산십이곡에 나타나는 백운제산(白雲在山)은 이와 기는 서로 다르지만 같이 있는 형태가 가장 조화로운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매우 철학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 백운제산(白雲在山)은 퇴계의 이기론(理氣論)의 문학적 형상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자개봉(紫蓋峯)

天嫌吾未趁丹楓 내가 단풍철에 오지 못할까 하늘이 의심하여
故遣山花發滿紅 철쭉꽃을 보내어 늦은 철에 피웠으니
正似虹橋連綵幕 참으로 홍예다리 놓아 채색장막으로 잇고
群仙酣宴武夷中 무이산에 신선 모아 흥겨운 잔치 벌이는 듯

‘내가 단풍 철에 오지 못할까 하늘이 의심하여’ 라는 표현에서 우선 주의할 것은 단풍철의 의미다. 보통 단풍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계절적 의미로 가을의 의미다. 가을은 조락의 계절로 죽음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면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시공간이나 세계의

의미다. 하늘이 의심하다라는 표현은 내가 의심하여 또는 근심 걱정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것은 내가 아름다운 세계라고 표현되는 어떤 이념이나 이법에 세계를 보지 못할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화자인 퇴계의 눈앞에 철쭉꽃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 것이다. 철쭉꽃 자체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단풍과는 다르다. 하지만 화자인 퇴계에게 이것은 단풍으로 표상 되는 아름다운 세계를 연상하고 맛보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퇴계가 이런 철쭉꽃을 바탕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생각하고 주자의 무이구곡가와 무의정사가 있는 이념의 최고 경지로서 무이산을 생각하면서 세속을 초탈한 즐거움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자개봉이란 붉은 색으로 덮힌 봉이란 의미로 이 시에서는 철쭉이 많이 피어있는 봉이란 뜻이다. 화자인 퇴계는 철쭉으로 붉게 물든 자개봉을 보며 주자의 무이정사가 있는 무이산을 생각하며 세속을 초탈해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법의 세계를 연상하고 있는 노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개봉은 무이산을 연상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이산은 주자학(朱子學)의 최고의 경지를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4. 結論

이 논의는 대(臺)나 봉(峯) 또는 산(山)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을 통해 퇴계가 산수경물을 어떤 형이상학적 태도로 바라보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는 퇴계의 산수문학이 어떤 사상이나 철학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학적 측면의 고찰이기도 하다.

퇴계의 시에서 대나 봉 또는 산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시들은 모두

산수경물의 대한 서경을 일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산수경물의 서경은 감정적 인식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형이상학적 차원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데 퇴계의 산수문학의 의의는 이러한 확장된 의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 고반대(考盤臺), 초은대(招隱臺), 응사대(凝思帶), 석제등대(石齋登臺)는 퇴계가 추앙하고 따르는 성인이나 고인 또는 유인의 문학적 형상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인들은 고운 소리를 내는 존재들이며 탁 트인 경지를 지니고 있고, 깊고도 고요한 골을 지니고 있으며, 벼락이 내리쳐도 꺾이지 않는 노송(老松)과 같은 존재다. 퇴계는 이러한 성인들을 통해 끊임없는 성찰과 학문에 정진을 다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산은 대자연의 원리인 이(理)의 세계를 표상하고 있으며, 산을 영구의 붓끝으로 표현하고 있다. 산을 영구의 붓끝으로 표현한 것은 산과 붓끝이 형태적 유사성에 의거한 표현이며 동시에 모든 글이 붓끝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지듯 대자연의 운행이 바로 산으로 표상되는 이(理)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속에 등장하는 화자 퇴계는 이런 이(理)의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퇴계는 기(氣)의 세계를 백운(白雲) 즉 구름으로 표상하고 있다. 구름은 안개가 되기도 하고 비가 되어 뿌려지기도 하며 만물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퇴계는 이러한 이와 기가 이원론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가장 조화로운 상태는 일원론적인 상태임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퇴계가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백운재산(白雲在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백운재산(白雲在山)은 이기론(理氣論)의 문학적 형상화로 보인다.

결국 퇴계의 산수시에서 드러나는 산(山)에 대한 퇴계의 인식은 자연경물이라는 현상에 선재(先在)하는 좀더 근원적이며 철학적인 사유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유의 중심에는 성현(聖賢)과 대자연(大自然)의 이법(理法)의 문제로 이기론(理氣論)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원중, 『중국문학이론의 세계』, 을유문화사, 2000.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_____, 『퇴계시가예술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유위립 저, 심규호 역, 『중국문예심리학사』, 동문선, 2002.
유협, 최동호역, 『문심조룡』, 민음사, 2000.